

# 홍삼축제 99개 업체 참여

### 진안군, 축제 기간 홍삼제품 20~50% · 가공품 최대 30% 할인 판매

진안군은 2일 오는 10월 19~22일까지 열리는 홍삼축제에 참여할 업체를 홍삼축제추진위원회 관계자, 군 관계자, 부스 신청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첨을 통해 99개 업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모두 7개 주제관 중 진안홍삼을 파는 홍삼주제관에 34개 업체,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로컬푸드관에 18개 업체,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운영하는 문화체험관에 14개 단체가 함께한다.

축제 참여 업체들은 축제기간 동안 품질인증홍삼가공품인 홍삼다린액 30포 7만5,000원인 제품을 5만5,000원에, 60포 15만원인 제품을 11만원에 할인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축제기간에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진행되는 홍삼 대 방송 행사를 매일 실시해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진안홍삼을 판매한다.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부스 입점



진안군은 2일 오는 10월 19~22일까지 열리는 홍삼축제에 참여할 업체를 추첨을 통해 99개 업체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자를 대상으로 위생 및 축제일반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유경중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장은 "올해는 건강충진, 활력충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더욱 새로워진 축제를 선보일 예정이다"며 "축제기간에 홍삼제품을 20~50% 할인된 가격에 구

매할 수 있고 진안군 품질인증을 거친 홍삼가공품을 최대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 진안홍삼축제는 마이산 북부 마이둔테마공원 일원에서 전통홍삼체험, 홍삼카테이슬 등 60여개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안산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 장수군, 46개소 완료

장수군은 장안산 등산로(무릉고개~정상, 정상~연주, 지소골~밀목재) 각 구간 46개소에 국가지점번호를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유관기관(경찰서·소방서)과 협력해 설치하고 검토 및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는 산악·해안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의 위치표시 체계로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안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나누어 100km 단위는 문자로 표기하고 10km·1km·100m·10m는 숫자로 표기한다.

국가지점번호를 표기하는 지역은 산악·해안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곳, 철문,수문, 방파제 등 시설물이 있는

곳, 인명피해 등 사고발생 빈도가 높아 국가지점번호의 설치가 필요한 곳 등이다.

장수군은 장안산 등산로에 국가지점번호를 설치하고 등산객들이 위급상황 발생시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산행 중 도움이 필요한 경우 119에 국가지점번호로 사고지점 위치를 신고하면 신속한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도로명주소가 있는 곳은 도로명주소로 사고지점의 위치를 알려주면 된다.

군 담당자는 위급상황 발생시 국가지점번호나 도로명주소를 찾아 119 또는 112에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군은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 장안산 등산로 국가지점번호판

# 진안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진안군은 2일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해 1만원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로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18년 동안

인상 없이 유지돼 왔다.

그동안의 물가상승과 고지서 인쇄비, 우편료 등 징세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인상권과 불이행 시 받는 교부세 패널티가 주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되었다.

주민세는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됐다. 지난해 7,000원으로 인상됐고 올해 1만원으로 최종 인상됐다. 도내 다른 자치단체도 지난해에 주민세 인상작업을 완료했다.

주민세 정가분은 8월에 부과 예정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안군청 세정계(063-430-2349)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

# 무주군, 괴산군 수해복구 지원

### 군청 공무원 42명, 고성리 인삼밭에서

무주군은 2일 군청 인력과 장비를 충북 괴산군 수해복구지역을 지원했다.

충북 괴산군 청천면 고성리 인삼 농가를 찾은 무주군청 공무원 42명은 얼마 전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인삼밭에서 쓰러진 지주대를 세우고 망가진 농자재를 치우는 등 복구를 도왔다.

공무원들은 "수해 현장을 직접 와서 보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서툴고 미려한 손길이었지만 피해농가가 하루 빨리 재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농업인 김 모 씨는 "진즉에 폭우로 밭이 엉망이 됐는데도 규모가 커서 복구가 쉽지 않았다"며

"멀리 무주에서까지 관심을 가져 찾아주시고 무더위 속에서도 내일처럼 거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무주군은 덤프트럭 1대와 관련 인력 2명을 청주시 남성면으로 보내 폭우로 흘러내린 토사를 치우며 도로복구를 도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소식통



# 무주경찰, 반부패 비리 기획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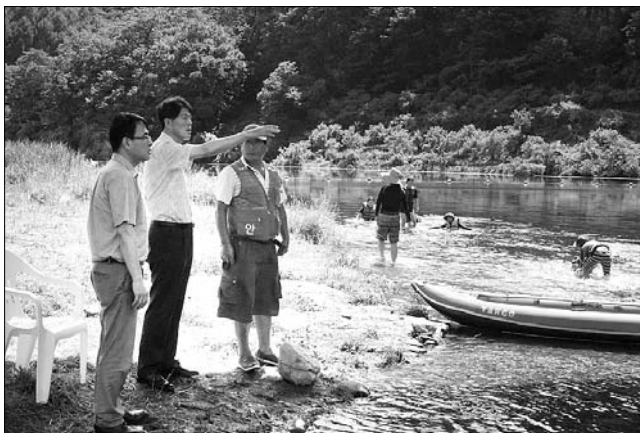
무주경찰서 수사과장 겸 감 정진만은 2일 무주서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각 과 출소장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비리척결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맞춰 중추적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립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획수사를 통하여 국정운영과 경찰신뢰에 뒷받침 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특히, 지역적 유형에 맞춘 테마를 지정 운영하며 조합비리 등 민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전개할 방침이다.

범죄유형으로는 조합자금 횡령, 무분별한 사업추진으로 인한 배임행위, 채용·승진·업체 선정비리, 국고보조금 횡령 등 조합관련 비리행위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나영민 서장은 "반부패 비리에 대한 공익신고자의 경우 보복우려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나아가 비리척결을 위한 경찰력을 총 동원하여 청렴한 사회변화에 무주경찰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 주력

### 15일까지 특별기간... 모든 물놀이객 구명조끼 착용 등

무주군은 방학과 휴가로 집중되고 있는 물놀이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달 15일까지를 물놀이 안전대책 특별기간으로 정한 무주군은 관내 계곡과 하천 등 물놀이 관광객들이 주로 몰리는 장소에 안전관리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안전시설 정비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별대책 사업으로 전체 물놀이 관리지역 10개소에 구명조끼 보관함을 설치(1,600여 개 비치)했으며 모든 물놀이객이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물놀이 관리지역마다 이동식 심장제세동기를 비치해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으며 책임담당 공무원이 해당 지역을 수시로 돌며 관공객들이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다.

지난 1일 관련 공무원들과 물놀이 관리 지역을 점검한 이태현 부군수는 "물놀이 안전사고는 대부분 사고자의 방심이나 간단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데에서 발생한다"며 "물놀이 안전대책 특별기간이 마무리될 때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전 지역에 대한 점검과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수칙을 공유하는데 주력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